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9. 23.(수) 총 5매(본문 4, 참고 1)	
담당 부서	국토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정의경, 서기관 김기훈, 사무관 김부병 • ☎ (044) 201-4950, 4733	
	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신성식, 사무관 오지영 • ☎ (042) 481-1695, 1609	
보 도 일 시		2020년 9월 2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3.(수) 16:00 이후 보도 가능		

판교2밸리 지방에도 만든다.

-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문화 복합인프라 갖춘 도심융합특구 조성 추진-

- ☐ 정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와 같이 지방 대도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산업과 주거,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.
- ☐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9.23(수)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보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 -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(광역시 5곳)의 도심에 기업,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'판교2밸리'와 같이 산업·주거·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.

※ 판교 제2테크노밸리

- 국토부, 과기부,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협력하여 산업, 주거,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 조성 후 창업·벤처기업 등을 유치(현재 약 450社 → 향후 1천社 이상으로 확대)

 판교 제2테크노밸리 관련 조감도, 입주 주요시설은 참고(5쪽) 확인

- 지방 광역시에 선도사업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하여 일정규모 이상(예시 : 인구 50만 이상 등) 도시로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.

- 도심융합특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,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코텍스 혁신지구, 싱가포르의 원노스 지구와 같이 공공 또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조성한 삶-일-여가(live-work-play)가 있는 혁신지구를 모델로 삼고 있다.

구분	포블레노우 ('01~'20)	코텍스 혁신지구 ('02~)	원노스 ('01~'20)
사진			
위치	스페인 바르셀로나	미국 세인트루이스	싱가포르
면적	116만m ²	81만m ²	200만m ²
개요	• 쇠퇴한 방직산업 집적지에 도시환경 개선 및 지식집약형 클러스터 육성 추진 • 공공의 장기적인 추진 전략(20년)을 바탕으로 인프라 정비, 기업지원	• 대학·기업 및 기타기관이 합작법인을 설립·개발 • 공공(市)은 합작법인에 토지 수용권, 세금감면권, 건축계획 승인·거부권 등의 권한 부여·지원	• 단지 내 모든 일과가 가능한 업무, 주거, 문화공간 조성 •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간이 주도하여 기업성장 지원 등 BT, IT 접목한 바이오 R&D 허브 구축
주요 성과	• 주요대학 유치 • 925개 기업입주 • 32,478명 고용	• 415개 기업 입주 • 4,200 기술관련 일자리 • 1천세대 주거, 상권 형성	• 노바티스 등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R&D센터 입주 • 840여개의 스타트업 입주

- 지역 경쟁력 회복의 출발점이 될 도심융합특구는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시에 집중하여 새로운 구심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, 지역 특색에 맞게 산업·주거·문화 사업을 융합하여 공간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등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.

< 도심융합특구 조성안(예시) >



< 기존 개발방식과의 차별성 >

	기존 개발방식		도심융합특구
공간 형태	도시 외곽/저밀도 (접근성, 정주여건 부족)	⇒	도시 중심지/고밀도 (접근성, 정주여건 양호)
지원 방식	개발(H/W)과 기업지원(S/W) 분리	⇒	개발(H/W)과 지원(S/W)을 집적
달성 목표	공급자 관점의 목표 (단편적 목표, 시행자 사업성 충족)	⇒	수요자가 필요한 니즈 충족 (토털 서비스, 좋은 입지 등 제공)

- 특히, 이번 조성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연구개발(R&D)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방안도 포함하고 있어, 특구 조성에서 운영까지 전생애주기를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.
- 이와 관련하여, 중기부는 혁신기업의 지방 이전 수요가 있는 경우,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존 정책을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우선 진행하고, 향후 성과 및 추가수요 등에 따라 신규사업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이번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지방 대도시가 과거의 인재, 기업 유출을 막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회복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.
-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은 이제 첫 단추를 낀 것으로, 향후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, 이와 동시에 5개 광역시와 협의하여 선도사업지 발굴에 착수 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“도심융합특구가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,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역량을 집중하려는 노력과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”하다고 언급하면서,

- “이번 도심융합특구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이며, 크고 작은 성장거점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고, 이들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‘성장거점-네트워크 균형발전전략’이 필요한 시점”이라며 정부, 지자체 등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기훈 서기관 (044-201-4950), 김부병 사무관(201-4733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판교2테크노밸리 조감도 및 주요시설

□ 판교2테크노밸리 조감도



□ 판교 제2테크노밸리 주요시설 현황

